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양승택 총장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00만 돌파, 벤처기업 5800여곳. 가파른 성장세를 달리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쏟아낸 기록들이다. 앞으로도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많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전문인력 문제도 그중의 하나. 2004년까지 2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주목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학교 양승택 총장을 만나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향후 역할 등에 관해 들어봤다. 〈편집자〉

Q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 같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경제는 지난 3월까지 109개월 연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경제의 호황은 디지털 · 반도체 · 통신 기술이 빚어낸 정보혁명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이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인데 미국처럼 108개월은 못 가더라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처럼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난 1월 현재 1100만 명에 이르고 금년 말이면 2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인터넷이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벤처 붐이 일고 있답니다. 하지만 절대 수에서는 우리나라에 못 미치죠. 인터넷 사용자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처럼 PC방이 없어요. 사이버트레이딩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일고 있는 인터넷 열풍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터넷을 붙인 회사명도

참 많아요. 회사명에 닷컴만 붙어도 투자자들이 몰려들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보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인터넷 열풍이 한순간에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국민 경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인감증명 같은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 모든 분야가 활성화될 겁니다. 얼굴을 굳이 맞대고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인터넷을 쓰고자 하는 게 효율성 때문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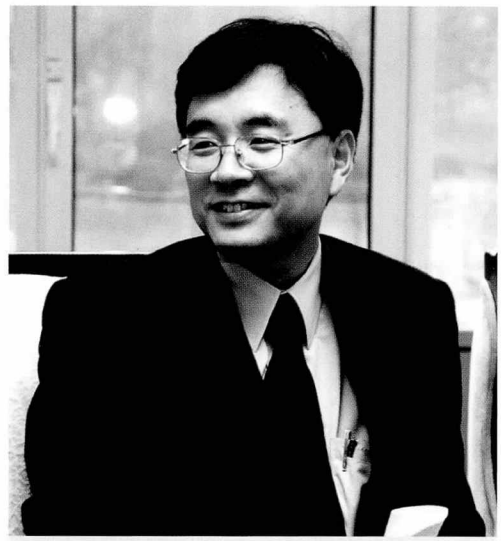
Q 2004년까지 21만 명의 정보통신 부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우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대학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는 정보통신 부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석 · 박사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다른 대학들이 경쟁의식을 갖도록 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역할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21만 명이 모두 석 · 박사 수준의 인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대학 출신도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1만 명 정도는 전문대나 대학을 나온 수준의 인력일 것이고, 나머지 10만이 대학 출신 이상일 겁니다.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해서 실제 강의를 듣는 사람을 늘린다든지, 각 대학이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신설할 경우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 학교의 부설교육원 같은 교육원을 이용해 기능인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겁니다. 사설 학원이나 특수대학과 협력해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인문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교육도 실시중입니다.

Q 기업들의 인재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담자 : 맹성현 충남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미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전산학 박사.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연구기획부장, 사라큐스 대학 부교수 역임.

저희 학교에는 특성화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 학생들을 일주일에 이틀씩 인턴십을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과대학생들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학부 과정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를 출신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면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공학부 학생들이 석사과정을 밟을 때 추가로 9학점을 경영학부에 가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공학부에 와서 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씩 각 기업들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설문을 돌리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학생들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사회 변화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런 변화 속도에 적응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부설교육원을 통해 4, 5년 전에 나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자바 교육을 시키는 등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Q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었을 때 6.25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모든 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국가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김해에 살았는데 지금 녹산공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김해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 거립니다.

그런데 6학년 담임선생님이 저더러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전쟁 중이니까 옆에 있는 중학교에 가라고 하셔서 바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 때 못 받은 졸업장을 최근에 받은 거죠. 그 때문에 좋은 일이 두 가지나 생겼습니다. 학교가 작아서 없던 총동창회가 제가 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구요, 또 한가지는 제 부친께서 3 · 1운동 때 6개월 징역을 사셨는데, 그동안 증거를 못 찾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 노인회 회장께서 증거자료를 주셔서 대구 고등법원에 있는 공판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학사업무 외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특별히 가지고 계신 취미가 있다면 한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잘하지는 못하지만 골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벨 연구소에 있을 때 주말이면 오전에는 잔디 깎고 오후에는 앉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이 잘 안 써질 때면 골프 치러 다닌 게 계기가 되어 어느덧 취미가 되었습니다.

Q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는 설립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만큼 성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한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대학원대학의 2000년도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수대학을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게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다른 대학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잣대를 찾고 있습니다. 유에스 앤 월드 리포트 신문이 제시한 기준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더라구요.

벤치마킹할 게 정리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만든 비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만든 계획은 막연한 자료에 의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창업 분위기입니다.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잖아요. 교수들도 학생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3, 4년만 유지하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원사 소식

한국후지쯔, 세계 최초로 FDB적용한 HDD Picobird-15시리즈 출시

한국후지쯔(대표 안경수)는 오는 4월부터 세계 최초로 유체베어링(FDB:Fluid Dynamic Bearing)기술을 적용해 기록용량을 장당 10GB로 높이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을 줄인 3.5인치 IDE HDD Picobird-15 시리즈를 출시한다.

Picobird-15는 기존 제품에 비해 장당 데이터 저장 밀도를 높여 고용량의 데이터 관리를 수월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빠르고 안정적이며 조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Picobird-15는 장당 기록 용량이 10GB로서 데이터 저장밀도를 높여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터넷 캐싱과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다 수월히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 전송속도를 37.8~48.6MB/S로 향상시켰다.

이번에 발표되는 Picobird-15시리즈는 5400RPM의 일반형과 7200RPM의 파워유저형으로 제품군을 구성하여 동시에 출시하며, 용량은 10.2GB, 15.3GB, 20.4GB가 있다.

특히 Picobird-15시리즈 중 파워유저용 모델은 그동안 볼베어링 방식의 Spindle모터가 가지고 있던 드라이브의 헤드의 Positioning에러, 소음, 충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던 유체베어링을 상용화하여 발표한 최초의 제품으로서 후지쯔의 앞선 기술력을 자랑한다.

유체베어링(FDB:Fluid Dynamic Bearing)이란 Spindle모터의 회전축에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을 두고 그 사이에 유체를 두어 모터가 회전을 시작하면, 넓은 공간의 유체들이 좁은 공간으로 모여 높은 압력의 베어링 효과를 냄으로써 기존 볼 베어링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그 특징을 보면 우선 0.03㎛까지 트랙밀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볼베어링은 물리적 크기와 마모에 의하여 미디어의 회전시 완전 원형 회전을 하지 못해 헤드의 Positioning에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트랙밀도를 0.1㎛ 이상 높이지 못한다.

또한 유체베어링은 고체형태의 볼베어링에 비해 외부충격에 매우 강하며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유체베어링은 HDD의 용량한계를 극복하면서 충격에 강하고 고속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알려져 왔다.